

	<h1>가정통신문</h1>	
<h2>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, 9월 1일부터 학교 현장 적용</h2>		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교육부는 ‘교권 강화’의 일환으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·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.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‘모두의 학교’ 구성원으로서 학생·교원·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,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내용

<p>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, 2023.9.1.</p>	<p>교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➔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➔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➔ 학생에게 주의, 조언, 상담, 훈육·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➔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
<p>학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➔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※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➔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·제지 당할 수 있어요 ➔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➔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	<p>학부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➔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➔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

2023. 9. 11.

정명고등학교장[직인생략]